

# ‘더 내고 더 받기’ 추가 논의 필요 vs 빠른입법 시급 ‘이견’

〈輿〉

〈野〉

輿 “개혁 취지, 고갈방지·지속가능”  
연금연구회 “재투표” 목소리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주의 성과 훼손 전대미문 사건  
연금연구회 공식적인 사과 요구”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 민토론의 결과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나 온다. 시민대표의 56%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되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지만 입법에 앞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여·야가 좁혀질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토론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모수 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개혁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9%)을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김상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 중 56%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다.

반면 다른 선택지인 ‘모수개혁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시민대표 중 42.6%는 모수개혁 2안을 선택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완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당·당파를 떠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초 견지했던 입장과 다른 시민토론 결과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야당은 추가 논의보다는 빠른 입법이 시급하며 압박에 나서면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좁혀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시민토론회 결과를

놓고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는 게 목표여야 하는데,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뚜렷한 의견 표명이 없고, 결과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

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반되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학습 및 토론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4일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이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속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내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입법 추진에 앞서 협의를 돌입한다. 여·야 차이가 뚜렷해 절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정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여신업계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관련 모범규준 제·개정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실시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계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다”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도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규준으로는 ▲ 내부통제기준 마련 ▲ 중고차금융 및 카

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이 있으며,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금감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했다. 이는 여전업권의 ‘자배구조법’과 관련한 것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이 규정된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합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여전사는 대출금 제3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중고 승용차 10일, 중고 상용차 25일)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제휴업체 후·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 사고 예방활동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캐롯손보, 노하우로 올해 흑자전환 ‘청신호’

인니서 BBI솔루션 구축사업 수주  
‘비보험 수익’ 기반 창출에 큰 의미

캐롯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출시 4년 만에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그동안의 적자 고리를 끊고 올해는 흑자전환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캐롯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의 BBI(운전습관 연동형 보험)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으로 캐롯손해보험의 내재화된 기술력과 데이터 역량이 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얻는다. 또한 비보험 수익 기반을 창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BBI 솔루션 구축과 같이 비보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디지털 보험사로서 쌓고 있는 노하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다양한 수익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을 선보였다. 이번 특약은 기술력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슈어테크 기업으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기존 인기를 얻은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탄 주행거리만큼 보험료를 계산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시 4년만에 누적 가입 170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특약은 기본 할인과 함께 안전운전 할인까지 제공해 차량 운행이 많은 고객들 대상으로도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이번 특약이 퍼마일 이후 다시 한번 자동차보험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캐롯손해보험의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의미를 가



문효일 캐롯손해보험 대표이사. /캐롯손해보험

진다는 분석이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전에는 운전을 조금 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객들을 주로 타깃으로 해왔다면 이번 특약은 주행거리가 많더라도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의 가격 경쟁력까지 확대했다”며 “고객들의 안전을 장려하면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손해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롯손해보험이 최근 새로운 도약에 나선 이유로는 흑자전환이 꼽힌다. 지난해 캐롯손해보험은 지난해 7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841억원) 대비 약 10% 개선했으나 출범 후 지속 적자를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도 100%를 넘나들면서 고전하고 있다.

올해는 흑자전환 드라이브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집대성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신생 산업군인 디지털 보험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올해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효율성 등 모든 지표들의 수치를 높이는 데 있다”며 “포화 산업인 보험에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한 만큼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내달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769가구 분양

GS건설, 여주 첫 자이 브랜드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경기 여주지역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GS건설에 따르면 오는 5월 경기 여주시 교통에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769가구를 분양한다. 여주에서 분양하는 첫 ‘자이’ 브랜드 아파트며, 여주에서 3년 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다.

여주역세권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에 전용 면적 기준 ▲59㎡A 85세대 ▲59㎡B 81

세대 ▲84㎡A 249세대 ▲84㎡B 248세대 ▲99㎡A 52세대 ▲99㎡B 52세대 ▲136㎡P(펜트하우스) 2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85㎡ 이하 중소형이 663세대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중대형인 99㎡도 104세대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다. 4-베이(Bay) 이상 판상형 평면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과 같은 차별화된 공간도 선보인다.

조경설계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투시도. /GS건설

다. 수경시설과 함께 조성된 단지 중앙의 고급스러운 휴게공간인 엘리시안가든, 다목적공간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테마형어린이놀이인 자이런그라운드 등 다양한 조경 및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안상미 기자 smahni@